

세상에는 교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저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참 신앙의 모습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은 흉악하고 사랑이 점점 더 메말라고 있다고는 하나,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되는 것은 그래도 아직은 교회가 타락하지 않았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제 2019 년도가 얼마남지 않았습니다.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면서 무슨 계획들을 세워 놓으셨습니까? 올해 세워 놓았던 계획들은 차질 없이 다 이루어 졌습니까? 아님, 다 이루지 못해 아쉬움만 남아 있습니까? 한 해가 다 가기 전에 잘 마무리하시고 다가오는 새해에는 계획을 잘 세우셔서 마무리되는 연말에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기도합니다.

목회자라면 누구나 목회의 비전을 갖습니다. 목회의 비전은 누가 뭐라해도 목회를 잘 하는 것입니다. 목회를 잘 하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교회의 사명 즉 교회가 해야 할 일을 잘 해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해야 목회를 잘할 수 있는가? 그것은 벤치마킹(Benchmarking)을 잘 하면 된다 생각합니다. 저는 2019 년을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면서 어떤교회를 벤치마킹해서 목회를 잘 해나갈까? 고민을 해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필라델피아 교회를 생각하면서 2020 년도는 이 교회를 벤치마킹해서 목회를 해 나가야 겠구나 하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도요한은 예수님으로부터 일곱교회에 관한 계시를 받았습니다. 그 일곱교회를 보면 어떤 교회는 칭찬과 책망을 동시에 받았는가하면 어떤교회는 책망만 받았고, 어떤 교회는 칭찬만 받았는데, 일곱교회 중 칭찬만 받은 교회는 바로 서머나 교회와 본문의 필라델피아 교회 뿐입니다. 특히 본문에서 예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은교회는 웅장하고 크고 훌륭한 교회가 아니라 작은교회요 게다가 ‘적은 능력’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 주님을 기쁘시게 했다는 것입니다. 본문을 통해 알아 보겠습니다.

1. 선교하는 교회였습니다. (8 절)

필라델피아교회의 이름은 ‘형제 사랑’이란 뜻입니다. 이 교회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에게 증거하는 교회였습니다. 신구약성경에서는 형제라고 할때 ‘가족간’ ‘유대 종족간’ ‘믿는 신자들 간’ ‘세상의 이웃간’에 두루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교회에 예수님께서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8 절) ‘열린문’을 두었다는 겁니다. ‘문’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구원의 문’ ‘생명의 문’을 의미합니다. 요 10:9 절에 예수님께서 “내가 곧 문이니 누구든지 나를 통해 안으로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고 나오며 풀을 얻으리라”라고 말씀하심으로 예수님은 구원의 문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열쇠를 가지고 계시는데 그 열쇠를 교회에 맡겨 놓으셨습니다(마 16:18-19)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선포하는 권능을 주시어 누구든지 복음을 듣고 구원의 문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게 문을 활짝 열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필라델피아교회는 다른교회보다 선교에 열심을 내는 교회였습니다. 선교하는 교회는 하나님께서 칭찬해 주십니다. 선교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칭찬하시고 인정해 주십니다. 선교하는 가정을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은혜의 때, 구원의 때를 활짝 열어 놓으셨습니다. 세상에 있는 많은 교회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가르쳐서 침례를주며 구원 받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도록 도와주라고 말입니다. 2020 년도에도 저희 사랑 침례교회는 지금까지 선교의 열정을가지고 달려온 것 처럼 계속해서 달려 가겠습니다. 이 교회에 오신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선교하라고 불러주신 줄 믿으십시오

2. 하나님께 인정 받는 교회였습니다(8-9 절) 요 14:21 절

8 절 후반부에 보시면, 필라델피아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였습니다. “네가 적은 힘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진리를 지키는 것, 즉 말씀대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은 인간의 큰 힘이거나 큰 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소속감으로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힘의 문제가 아니라 말씀에 대한 믿음의 문제입니다. 오히려 부하고 가진 것 많고 육신적으로 강한 사람들은 그것을 지키기 위해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기 쉽습니다.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사람은 비록 외관상으로는 보잘 것 없고 자랑 할 만한 것이 없지만 말씀을 사랑하고 이 진리를 지켜 나가는데 애쓰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진리를 지켜나가다 보면 반드시 핍박이 오게됩니다. 그 핍박을 인내의 말씀에 의지하며 잘 견뎌낸 교회가 필라델피아 교회입니다. 이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의 메시아됨을 부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들을 핍박 했습니다. 그들은 형통으로 하나님의 선민이고 자신들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믿어 신앙의 우월감에 빠져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의 메시아됨을 부정하는 ‘사단의 회당’에 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신앙의 우월감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우선은 교만합니다. 이런 사람들로 부터 겸손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핍박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내로써 그 핍박을 잘 견디어내는 사람을 승리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겸손한 사람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9 절) 말씀을 잘 지키는 교회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축복이 임하십니다. 반면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교회 앞에 무릎을 꿇게하십니다. 여러가지 어려운 가운데서도 잘 인내하여 하나님께 인정 받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3. 큰 환란의 때를 면하는 교회였습니다.(10 절)

10 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나도 너를 지켜 시험의 시간을 면하게 하리니 그것은 곧 앞으로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하는 시간이라.” 이 말씀은 마지막때에 예수님께서 공중에 오실때 교회는 환란의 시간속으로 들어가지 않고 그때를 면해 주시겠다는 소망의 말씀입니다. 이 ‘시험의 시간’은 세상에 남겨진 사람들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의미합니다. (계 4-19 장) 이 교회는 신실한 그리스도의 자녀들이었으며 배교하지도 않고 진리에서 떠나지 않은 교회였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비극중에 가장 큰 비극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구원 받고 천국 갈 줄 알았는데 천국에 못 가는 겁니다.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헌신했는데 예수님은 받아들이지 못한채 종교생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때를 면하는 교회는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 있는 교회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속에 있기만 하면 어떤 환란이나 고난이 와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속에 들어가지 않게 해 주실 것입니다. 목회자의 가장 큰 바램과 소망은 교회에 소속된 모두가 예수님을 구원의 주로 그리고 삶을 주관하시는 주인으로 받아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이미 받아들이셨습니까? 말씀을 잘 듣고 행하십니까? 아직까지 예수님이 마음속에 들어와 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다른 사람안에는 구원이 없나니 하늘아래 우리를 구원할 다른 이름을 사람들 가운데 주지 아니 하셨느니라” (행 4:12) 그렇습니다.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 받을 수 없습니다. “예수” 그 이름을 믿는자에게 구원이 임하신다고 하나님께서 영원하고 변함 없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분을 받아들이는자들 곧 그준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주셨다” (요 1:12 절)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도 낙오되지 않고 다 구원 받은 교회 모두가 다 예수 믿고 천국가는 교회를 목회자는 꿈을 꿉니다.

4. 결론

“이 대언의 말씀을 읽는자와 듣고 그안에 기록된 그것들을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